

도 - 과기정통부 - 경북, 손 맞잡고 4차 산업혁명 신산업 육성 준비

‘인간중심적인 서비스 실현’ 위한 국제포럼 열어
초융합 HR 홀로현실 산업 발전전략 방안 마련

전북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23일부터 2일간 미래 국가경제를 견인할 초융합 HR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초융합 HR 산업 발전전략 국제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에는 해외 10개국 홀로그램 전문가와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사무총장 자치단체장 및 산학연 전문가 200여명이 참여했다.

홀로그램산업은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새로운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산업이다.

과기부에서는 홀로그램을 디지털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세계시장 선도를 위한 K-ICT 디지털콘텐츠 5대 기술로 선정하여 정책 및 산업육성을 추진해 왔다.

또한 지난 2017년 12월에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제4차 산업혁명

과 연계한 초융합 HR 홀로현실 산업 발전전략 방안도 마련했다.

홀로그램 콘텐츠는 문화와 산업,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5G, IoT 등 첨단 통신 인프라와 디바이스 기술을 활용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또한 다른 산업과도 융합하여 타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줄 수 있으며 성장 잠재력이 매우 커 국가 전략 산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2018년 5월에 전북연구원을 통해 홀로그램콘텐츠 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한바 있고, 정부에서는 국가 혁신성장 관계 장관회의(2018.8)에서 전북을 홀로그램 거점지역으로 지정하여 전북이 홀로그램 분야에 선도 지자체로 부상되고 있다.

과기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과 인간중심적 초융합HR(홀

로현실)을 위한 서비스 실현’을 비전으로 ▲광제어, HR프린팅 등 40개 핵심기술개발 ▲문화·교통 안전 등 20개 서비스기술개발 ▲서비스 실증 등으로 연결되는 패키지형 R&D 추진 전략을 마련, 지자체(전북, 경북)와의 공동 포럼을 통해 세부계획에 대한 지역 및 산학연, 민간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포럼 환영사에서 “초연결·초지는 사회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융합 콘텐츠 산업을 나가기 위해서는 ICT 서비스를 기반으로 홀로그램 등 관련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과 지원체계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홀로그램 국제포럼을 통해 전라북도의 대규모 국제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지역의 현재를 조망하여 향후 초융합 HR산업 육성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김진성기자

4월 7~8일 저온피해 복구비 71억5000만원 지원 확정

농약대·대파대·생계비 등 지원으로 피해농가 도움

전북도는 지난 4월 7~8일 이상저온으로 도내 전역에 발생한 농작물 피해 복구비로 14개 전 시군에 71억5000만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2,961ha이며, 그 중 과수 2,260ha, 인삼 601ha로 전체 피해면적의 96.8%에 달했다.

주 지원내용은 농약대이며 1ha 기준 과수류는 지난해 620원 대비 28배 증가한 17,620원, 인삼은 지난해 230원 대

비 14배 증가한 3230원을 지원한다.

시군별 피해복구비는 장수군이 전체 27%인 19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무주군 11억7,100만원, 진안군 10억 8,5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재해복구비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도비 예비비를 편성하여 피해농가에 복구비를 조속히 지급할 방침이다.

이상저온으로 암살 고사, 수정불량, 낙과 등 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농약대를 지원하고, 작물이 고사한 경우

에는 타 작물로 파종할 수 있도록 대파대(종자대)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농가별로 피해율이 50%이상 입은 15가구에 대해서는 복구비 외 생계지원비를 가구당 42만1800원~94만9000원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측이 어려운 기상변화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농가에서는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절실하다면서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제236차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개최

전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제236차 월례회의가 23일 정읍시의회(의장 최낙산)에서 14개 시·군 의장과 유진섭 정읍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었다.

〈관련기사4면〉

이날 회의는 제8대 전반기를 이끌어 갈 협의회장 및 임원 선출과 월례회 개최 일정을 계획하기 위한 회의로 진행 되었으며, 회의 진행순서는 개회식후 시·군의회 참석의장 소개에

이어 최낙산 정읍시의회 의장의 내빈 소개와 환영사가 있던 후 협의회와 의장 상호간 기념품을 전달했다.

제1부 개회식을 마치고 제2부 본회의 진행에 있어서는 최고 연장자인 김제시 은주현 임시회장의 주재하에 제8대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선출을 하였으며 새로 선출된 전주시의회 박병술 회장의 주재하에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임원선출의 건, 전반기 의장협의회

개최일정 계획의 건을 처리했다.

의장단 선출 개최결과 제8대 전반기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에는 전주시의회 박병술 의장이 당선 되었으며, 상임부회장은 김제시의회 은주현 의장, 임실군의회 신대용 의장을 선출했고 감사에 군산시의회 김경구 의장, 장수군의회 김종문 의장이 각각 선출되었다.

한편 제237차 전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김제시의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음=김대환기자

전북투어패스 지역축제 연계 홍보·판매

도, 축제장 찾는 방문객에게 전북투어패스 집중 홍보·인지도 제고

전북도에서는 올가을 여행기간을 이용하여 전북도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전북투어패스를 알리고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8년 가을! 시군 축제의 다양한 유료콘텐츠와 체험상품과 전북투어패스를 연계한 패키지상품을 개발하여 온라인 홍보와 인터넷 판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전북투어패스와 연계 추진하는 지역축제로는 지난 8월 전주 가막축제에 이어 9월 무주 반딧불축제, 부안 곰소갯길축제, 10월 김제 지평선축제, 정읍 구절초꽃축제이다. 현재까지 협의된 투어패스 축제 연계 상품으로는 오는 9월 무주 반

딧불 축제의 반디나라관 무료입장, 부안 곰소갯길축제의 다양한 체험 상품 연계이며, 10월 정읍 구절초꽃 축제의 무료입장, 김제 지평선 축제의 무료체험 등이다.

전북도에서는 전북투어패스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이용하여 축제연계상품을 온 오프라인 홍보에 집중하고 육선, 위메프, 티몬 등 10여개의 인터넷 판매처에서 선관매를 실시하여 지역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할 예정이다.

나아가 시군 축제를 찾는 관광객에게 전북투어패스의 취지를 알리고 이용 혜택을 넓혀, 전북을 관광하기 전 준비해야하는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잡고 전북 여행을 연계 상품으로는 오는 9월 무주 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전북도는 지난 8월 전주 가막축제와 연계하여 전북투어패스 1천만여장을 판매하였으며, 현재까지 10만여장의 전북투어패스를 판매했다. 올 가을 시군축제와 연계한 상품판매로 2018년 판매 목표 15만매를 달성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도 운동용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북투어패스가 시군축제와 연계하여 시군 지역관광을 활성화시키는 촉매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이며, 이를 통해 전북이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물론, 한국 속의 한국 여행체험 1번지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성기자

“전교조 범외노조 철회 해야” 한목소리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 12개 시도교육감 23일 기자회견

전국시도교육감들이 전교조 범외노조 처분 취소를 위해 다시 한번 한목소리를 냈다.

김승환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을 비롯해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등 임원진은 23일 국회 교육위원회(의장 이찬열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 이후 전교조 청와대 농성장을 찾아 범외노조 처분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교육감들은 “전교조가 철야 농성을 시작한 지 벌써 70여일 제로 위원장은 폭염 속에서 범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며 27일간 단식투쟁을 하다 결국 병원에 입원했다”면서 “전교조 범외노조 처분을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김승환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을 비롯해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등 임원진은 23일 국회 교육위원회(의장 이찬열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 이후 전교조 청와대 농성장을 찾아 범외노조 처분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강조했다.

또 “국제노동기구·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도 범외노조 취소를 권고하고 있고 최근에는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과정에 당시 대법원의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감들은 “전교조 지도부의 단식투쟁이 길어질수록 교직사회 상처는 깊어질 것”이라면서 “정부는 전교조 범외노조 철회 결단을 내려 교단의 상처를 보듬고 사회적 갈등을 풀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재훈기자

文대통령, 태풍 ‘솔릭’ 대비 전념... 규제혁신 외부행사 연기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제19호 태풍 ‘솔릭’의 북상에 따른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당초 예정됐던 규제혁신 관련 외부 행사를 연기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규제혁신 행보의 일환으로 외부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다가 정부의 태풍 비상대비체제가 가동되면서 일

정을 연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관리센터에서 태풍 피해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적 비상대비 태세 유지와 함께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가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재난에 가까운 태풍 대비가 우선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뉴시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